

연재 도시 이야기, 어바웃 런던 Ep. 02

도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정원에서 나무를 기를 때 우리는 가지를 계속 뻗게 두지만은 않는다.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래되거나 지나치게 얽힌 가지를 잘라낸다. 지금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덜어냄으로써 빛과 바람이 드나들 틈을 만들고 나무가 새로운 방향 혹은 더 나은 두 갈래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성장해왔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해야 했고,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은 더 가속화되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자연을 하나의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겼고 성장의 기준 역시 공학적 효율성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를 너무 나무랄 탓은 없다. 그때 우리에게는 도시를 확장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 건설한 도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확장되어 왔다면 이제 우리는 욕망을 덜어내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것을 비워낼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자연에 내어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장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자른다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것은 아니다. 세심한 가지치기는 하나로 뻗어가는 성장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빽빽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사이에서 도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생장점을 찾아 정확하게 잘라내어야 한다. 사람만을 향하던 도시의 가지가 자연과 사람, 두 방향으로 함께 뻗어나갈 수 있도록.

◆



김승후
도시디자이너

도시를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기술적 현실을 읽는 동시에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도시디자인을 공부했으며, 재학 중 컬럼비아 언론대학원에서 환경과 도시를 다루는 글쓰기 수업을 이수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지어진 도시를 전략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디자인을 탐구하고 있다. 현재 런던에서 도시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하이우드 'LVL 다루끼' 누적 판매 70만개 돌파

보급형 제품 이르면 연내 출시 예정…철강 파렛트 시장도 확대

㈜하이우드엔옥토버상사(대표 나재호, 이하 하이우드)의 'LVL 다루끼(각재)' 누적 판매량이 70만개를 넘어섰다. 지난 4월 50만 개 돌파 이후 약 20만 개가 추가 판매되면서 건축 현장 등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하이우드는 기존 고사양 LVL 다루끼와 별도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현장용 제품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성장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루끼 수요에 맞춰 사양과 가격을 조정한 보급형 제품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제품이 품질과 인증을 앞세워 대형 건설사와 고사양 시장을 공략했다면 신제품은 일반 건축 현장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저가 수준의 공급가격을 목표로 하면서도 품질 경쟁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VL 다루끼



철강제품 규격에 맞춘 LVL 파렛트.

아울러 산업용 LVL 시장에서도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우드는 현재 대형 철강회사에 철강 파렛트용 LVL 소재를 월 6만재 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LVL 철강재

철강제품은 중량이 크고 운송 과정에서 높은 하중을 견뎌야 하는 만큼 파렛트 소재의 강도와 규격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이우드는 LVL의 균일한 품질과 규격 생산이 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철강용 포장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 단순 소재 공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철강제품 규격에 맞춘 LVL 파렛트 주문 제작과 완제품 납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크기와 적재 조건에 맞춰 LVL 소재를 가공해 파렛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이우드 나재호 대표는 "건축용 다루끼에서 시작한 LVL 공급을 산업용 파렛트 소재와 주문 제작 제품으로 넓히면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서해 갯벌부터 금강소나무숲까지…
동서트레일 512㎞ 먼저 걸어보세요

산림청, 10월부터 두 달간 대국민 시범개통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0월1일부터 두 달간 동서트레일 32개 구간 512㎞를 먼저 여는 '대국민 시범개통'을 실시한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총 849㎞의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이다. 시범개통을 통해 전 노선이 완성되기 전에 국민이 먼저 걸어 보고 함께 다듬는 과정으로, 이용객의 후기를 노선 정비와 대피소 운영에 반영해 길의 완성도를 높인다.



동서트레일 대국민 시범개통 포스터.

시범개통의 백미는 '숲에서 보내는 하룻밤'이다. 길 위의 대피소 30곳에서 백패킹을 즐길 수 있으며, 예약은 9월29일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용객은 배낭에 숙박과 취사 등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준비해 트레일을 걷고, 지정된 대피소에서 숙박하며 장거리 숲길의 매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 대피소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루는 서해 갯벌과 내포의 옛길을, 또 하루는 백두대간의 깊은 숲과 울진 금강소나무숲을 걷는 등 구간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며, 기간 중에는 크고 작은 백패킹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시범개통 기간 대피소 안전관리와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 안에 849㎞ 전 구간 조성을 마무리한다. 시범개통에서 모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7년 10월 전 구간을 개통하고, 동서트레일을 세계인이 찾아와 걷는 대한민국 대표 장거리 트레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숲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동서트레일에서 숲속의 하룻밤을 먼저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모여 세계적인 장거리 숲길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유영 기자 etriora@imwood.co.kr

전문가 기고 | 윤상갑 부산산림기술사무소 소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심각한 산림교란으로 보아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되었다. 그동안의 방제가 고사목을 제거하고 병해충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숲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산림을 바라봐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히 소나무 몇 그루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로 발생하면 특정 수종의 집단고사를 통해 수종 구성, 수관 구조, 임분 밀도 등 산림의 구조와 기능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심각한 산림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산불 역시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교란이다.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불은 발생 원인과 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대규모 집단고사가 발생할 경우 산림구조와 기능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대규모 산림교란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소나무가 감소한 자리에 활엽수와 관목, 초본 등이 들어오면서 자연천이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천이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연천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과 생태적 조건에 맞는 새로운 산림구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급격한 집단고사는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와 다를 수 있다. 대규모 고사로 산림의 수관이 급격히 사라지면 경관, 토양 보호, 수원 함양, 탄소 저장, 생물다양성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사목의 급격한 증가 역시 산불,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추가적인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나무가 몇 퍼센트 고사했는가만으로 산림 피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같은 고사율이라도 소나무 단순림인지 혼효림인지, 소나무와 활엽수의 구성비가 어떠한지, 경사와 토양 조건은 어떤지, 생활권이나 수원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산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의 재선충병 관리는 고사목 제거 숫자나 방제 면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관 구조와 임분 밀도, 토양 보호 기능, 경관, 생물다양성, 산림의 회복 과정 등 산림이 수행하는 기능을 얼마나 유지했는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산림관리가 필요하다. 산림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소나무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수종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산림 기능이 유지되는 곳이라면 자연천이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제방법이나 일률적인 수종전환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산림의 기능과 입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일정 면적을 정해 획일적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산림교란이 될 수 있다. 먼저 그 산림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산림구조와 수종 구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방제기술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현장 효과를 비교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행정적 편의나 기존 사업체계의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산림을 얼마나 살리고 산림의 기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산림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시설물이 아니다. 한번 크게 변화한 산림구조를 회복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방제정책은 현재의 고사목 숫자를 줄이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30년, 50년 뒤 어떤 숲을 남길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제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다.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산림관리의 핵심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단순한 병해충 방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산림교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몇 그루를 제거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어떤 숲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산림정책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윤상갑 소장
부산산림기술사무소·산림기술사

목재문화진흥회, 전국 31개교서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9월부터 11월까지 학생 1970여 명 대상…탄소중립·국산목재 가치 교육



목재문화진흥회는 9월11일(대면)과 15일(비대면) 이틀간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오세창)는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2026년 학교 목재체험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1개교, 학생 약 197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6회차씩 순차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저장 원리와 국산목재의 가치를 배우는 이론교육을 받은 뒤,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 프로그램인 편백 트레이 만들기와 야외용 화분 보관함 만들기를 포함해 총 6종으로 구성되며, 학교급과 학교별 여건에 맞춰 선택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야외용 화분 보관함 만들기 프로그램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불피해목을 재료로 활용한다. 학생들은 산불피해목이 새로운 목제품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목재 재자원화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초·중·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준별 이론교육 교재도 제작해 참여 학교에 배포했다. 교재는 탄소중립과 국산목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내용과 난이도를 달리해 구성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9월11일(대면)과 15일(비대면) 이틀간 참여 학교 담당교사와 목재교육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실습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질 수업을 미리 경험하도록 했으며, 학교별 운영여건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2026년 목재체험교실의 자세한 내용은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와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유영 기자 etriora@imwood.co.kr

나무골의 숲속편지

이진한
kalia777@naver.com





제호 나무신문
발행·편집인 서범석
인쇄인 유동은
등록일 2006년 11월 14일
등록번호 서울다 07545 〈주간〉
2007년 1월 15일 창간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614호(여의도동, 콤비빌딩)
대표전화 02.825.0915
팩 스 02.825.0917
홈페이지 www.imwood.co.kr
이 메 일 imwood@ imwood.co.kr
웹 하 드 ID:woodweek / W:091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및 광고료 입금
국민은행 875401-01-521077
농협 179533-56-005981
예금주 서범석(나무신문사)
1년 구독료 7만원 1부 2천원
본지에 게재 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면동의 없이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